

## 등문고를 올린 어리석은 여성들

—〈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강우규\*

<차례>

1. 서론
2. 육취옥과 목지란의 형상화 양상
3. 어리석은 여성들의 도식성과 경계성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애육추구를 위해 등문고를 올린 어리석은 여성인물로서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과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살펴보았다. 육취옥과 목지란은 가문, 외모, 성정 등 무엇 하나도 취할 것 없는 여성으로 등문고를 올려 남주인공의 첩실이 되는 공통서사 속에서 어리석은 여성이라는 인물유형의 도식성과 경계성을 보여준다. 그녀들은 유교이데올로기에 따른 선악의 경계에 놓여 있고, “어리석음(愚)=추함(醜)”이라는 도식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유형화된다. 그런데 혼인 이후 목지란은 악인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죽어서 임부에서 사라지고, 육취옥은 끊임없이 애육을 추구하지만 현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는 일상성·현실성이 강한 〈현씨양옹쌍린기〉와 이념성·교화성이 강한 〈임씨삼대록〉의 작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리석은 여성이 지닌 경계성 그 자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리석은 여성의 경계 없는 경계성은 국문장편소설의 이종성과 연결되는 그녀들의 존재 가치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부(愚婦), 경계성, 도식성, <현씨양옹쌍린기>, <임씨삼대록>

\* 중앙대학교 HK연구교수

## 1. 서론

조선 태종 원년 등문고를 설치하고, 고향 데가 없는 백성 중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품은 자는 나와서 등문고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등문고는 신문고로 명칭이 변경되어 경외(京外)의 고향 데 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소재지의 관사에 고향여도 소재지의 관사에서 이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등문고를 치게 하였다.<sup>1)</sup> 이러한 등문고(신문고)는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이자, 최후의 항고 제도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격고자의 대부분이 민중들이 아니라 문무관료와 양반이었고, 경외인(京外人)이 아니라 재경인(在京人)이었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제도로 파악된다.<sup>2)</sup>

그런데 국문장편소설에는 등문고를 울리는 여성 인물들이 종종 나타난다. 등문고를 울리는 여성들로는 먼저 <소씨삼대록>의 형씨, <현몽쌍룡기>의 양옥설과 정채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소씨삼대록>의 형씨는 남편 운성을 구하기 위해 등문고를 울린다. <현몽쌍룡기>의 양옥설은 악인들의 계약으로 역모의 누명을 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등문고를 울리고, 정채임은 계모 박씨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한 부친과 부모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강상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남동생을 위해서 등문고를 울린다. 이외에도 <소씨삼대록>의 쌍란, 경홍과 같이 자신의 주인(여주인공)을 구하기 위하여 등문고를 울리는 시녀들도 존재한다. 여기에서 등문고는 원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후의 항고 제도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성의

1) 命無告之民御冤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京外無告之民 以其冤抑 告所在官司 所在官司不受治者 則許令進擊登聞鼓 其所登聞之事 令憲司推明 申聞決折以伸冤抑 其中挾私懷怨 敢行誣告者 反坐 以杜讒佞 從之 改登聞鼓 爲申聞鼓. (태종실록 2권, 태종 원년 8월 1일 정사,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8001\\_001](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8001_001))

2) 한상권, 『조선시대 소원제도의(訴冤制度) 발달과정』, 『한국학보』 19-4, 일지사, 1993, 102쪽.

가문 외적 활동이 제약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주인공이 가문 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또한 등문고는 격고자인 여성인물들의 열절을 강조하며, 선한 인물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징치함으로써 유교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등문고를 올리는 여성 인물도 있다. 이러한 여성들로는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과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들 수 있다. 이들에게 등문고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여성이 애육추구를 위하여 등문고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들이 강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육취옥과 목지란은 공통적으로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인물이다. 등문고를 올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애육을 추구한 이들은 당연히 부덕을 갖춘 여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가문에서 배제되는 음란한 악녀도 아니다. 이들은 추한 용모와 염치없는 행동으로 주변인물의 비웃음을 사는 어리석은 여성들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란 사전적으로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고 정의된다. 국문장편소설 속 육취옥과 목지란과 같은 여성들은 사전적 정의의 어리석음을 그 성정으로 하면서 동시에 유교적인 婦德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서사의 맥락 속에서 눈치와 염치가 없거나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다른 등장인물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sup>3)</sup>, 유교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교양이나 지혜가 부족한 여성들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여성으로 형상화되는 목지란과 육취옥은 사회경제적 처지, 인물 성격 등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녀들은 신분은 사대부이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에 의지하였고, 친척 관계에 있는 여주인공의

3) 박은정,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 『古典文學研究』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245쪽.

남편을 보고 반해서 등문고를 울리며, 결국 황제의 인가를 받아서 남주인공의 첩실이 된다.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가문 외적 활동이 제약된 여성의 신분으로 애정 성취를 위하여 등문고까지 올리는 적극적인 여성인 것이다. 그런데 두 인물이 적극적으로 애정 욕망을 추구한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목지란은 악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작품에서 사라지는 반면, 육취옥은 어쩔든 남편인 경문과 하룻밤을 보낸 후 딸을 낳고, 후편들인 <명주기봉>과 <명주옥연기합록>에서도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어리석은 여성으로서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과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이라는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두 인물의 성격과 작중 기능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특히 육취옥은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3부작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먼저 정혜경은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인물로 파악하고, 이 인물을 통해 작품은 사회적,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교화를 유도하지만 끝내 교정되지 않는 것을 통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한 인물이 얼마나 우스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sup>4)</sup> 김지연은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애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고 용렬하지만 악하지 않은 인물로서, 적극적인 욕망을 소극적으로나마 충족하는 여성으로 파악하였다.<sup>5)</sup> 김서운은 육취옥의 신분을 몰락한 사족여성으로 파악하고,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고통받는 인물이라고 하

4)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5)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학회, 2005, 220~247쪽.

였다.<sup>6)</sup> 박은정은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3부작에 나타난 육취옥의 일생을 살피고, 육취옥을 제어되지 않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현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완전하게 소속되지 못한 가문의 경계인이며, 갈등과 성장의 매개자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육취옥이라는 캐릭터는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이 지속될 수 있고, 일상성과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sup>7)</sup>.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에 비하면, 목지란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지란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그녀의 추모에 주목한 조혜란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목지란의 추모는 시집 구성원들의 시선 속에서 동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타자화되는 계기이며, 교양이나 본능의 결핍 또는 잉여의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8)</sup> 최수현은 〈임씨삼대록〉의 여성들을 연구하면서 목지란을 몰락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등문고를 올려 임씨 가문에 들어와 위계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로서, 여성이 애정 욕망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작품의 부정적 인식을 부각시킨다고 하였다.<sup>9)</sup> 정선희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가문이나 가족 내에서 소외되는 양상을 살피면서, 목지란은 흉물스러움, 음흉함 때문에 설씨 집안에서도 임씨 집안에서도 회피와 배척의 대상이 되다가 옥선군주에게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여인이라고 파악하였다.<sup>10)</sup> 이러한 선행연구는 육취옥이나 목지란의 인물 성격 및 작중 기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

6) 김서윤,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한국학』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98~218쪽.

7) 박은정, 앞의 논문, 223~260쪽.

8)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483~518쪽.

9)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89~106쪽.

10)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쪽.

주지만, 두 인물이 보여주는 상당한 공통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취옥과 목지란이 비록 주변 인물이지만 그녀들의 유형적 인물 형상이 국문장편소설의 창작방식이나 의식성향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임씨삼대록〉의 목지란과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여성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sup>11)</sup>

## 2. 육취옥과 목지란의 형상화 양상

〈현씨〉와 〈임씨〉는 1790년대에 필사된 〈옥원재합기연〉의 소설 목록에 그 제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중후반에는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작품에는 애욕 실현을 위해 등문고를 올리는 어리석은 여성이 동일하게 형상화된다. 〈현씨〉의 육취옥과 〈임씨〉의 목지란이 바로 그들인데, 이 둘이 애욕을 추구하는 과정은 상당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두 인물의 애욕추구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는데, 여기에서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의 전개양상을 살피면서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11) 본 연구는 연세대 소장본 24권 24책 〈현씨양옹쌍린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40권 40책 〈임씨삼대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 경인문화사, 2006’, ‘김지영 외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 소명출판, 2010’을 참조하였다. 이후 인용문은 현대어역으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원전의 권, 쪽수를 병기한다. 그리고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후 본문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를 〈현씨〉로, 〈임씨삼대록〉을 〈임씨〉로 표기한다.

12)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한국학』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87쪽.

구분		〈현씨〉 육취옥	〈임씨〉 목지란
1 단계	공통	<b>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의탁하여 지내다.</b>	
	개별	(가)-1. 혈혈단신으로 외삼촌댁에 의지하여 지내다.	(나)-1. 오빠인 목지형과 함께 종조모댁인 설부에 의탁하다. -2. 설공자들을 흠쳐보다.
2 단계	공통	<b>남주인공(종형제의 남편)을 보고 반하다.</b>	
	개별	(가)-1. 주소지의 남편인 경문을 보고 반해 빼앗고자 마음먹다. -2. 시비 능선과 함께 경문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해하지만 실패하다.	(나)-1. 설소지의 정혼자인 임창홍을 보고 반하다. -2. 지형이 지란을 옥선군주에게 데려오고, 지란은 옥선군주의 협실에서 지내다.
3 단계	공통	<b>등문고를 올려 남주인공이 첩실이 되다.</b>	
	개별	(가)-1. 등문고를 올려 경문의 첩실이 되다. -2. 취옥의 시녀 영월이 주소지를 음해하고 후부인을 선동하는 등 경문과 주소지 사이를 훼방놓는다. -3. 장시랑의 계교로 경문과 합방하여 딸을 낳는다.	(나)-1. 옥선군주가 창홍의 첩실이 되자, 지란은 옥선군주에게 상소문을 부탁하고 등문고를 올려 창홍의 첩실이 된다. -2. 설씨로 변한 옥선군주에 의해 구타 및 죽임을 당한다.

〈표-1〉 육취옥과 목지란의 공통서사 및 개별서사

〈표-1〉은 육취옥과 목지란이 보여주는 공통서사와 개별서사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육취옥과 목지란은 “1단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의탁하다 → 2단계: 남주인공(종형제의 남편)을 보고 반하다 → 3단계: 등문고를 올려 남주인공의 첩실이 되다”라는 공통된 서사를 보여준다.

먼저 1단계는 육취옥과 목지란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의탁해 지낸다. 육취옥은 혈혈단신으로 외삼촌인 주어사 댁에 의지하여 살고, 목지란은 오빠인 목지형과 함께 매우 가난한 조부 밑에서 끼니도 제대로 있지 못하다가 종조모댁인 설부에 의탁하여 지내는 것이다. 이는 그녀들이 신분은 사대부이지만 몰락한 처지에 있는 여성으로, 숙녀의 행실을 배울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기 어려웠던 환경에 처해 있었음을 나타낸다.<sup>13)</sup>

13) 최수현, 앞의 논문, 73쪽.

육취옥과 목지란은 또한 등장하는 순간부터 문제적 성품과 추한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이들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여성으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현씨>에서 육취옥은 갑자기 등장하여 “그 위인(爲人)이 경천패려(輕賤悻戾)하여 여행(女行)이 바이 없고 곁하여 용모(容貌)가 등등하여 무일가취(無一可取)”<sup>15)</sup>라고 하면서, 가문, 용모, 성정 그 무엇 하나도 취할 것 없는 인물로 간단하게 묘사된다. 그리고는 곧바로 (나)1의 내용으로 이어진다.

반면에 <임씨>에서는 목지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임씨>에서는 목지란이 “날 때부터 그 품성과 기질이 기이하고 음흉하여 음양이 나누일 때 한 뭉치 차잡고 더러운 기운을 모아 흉악한 모양의 괴물을 내놓은 상이었으니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마땅하였다. 흉악하고 박색인 얼굴은 없고 맺은데다 금방울 같은 두 눈은 모나고 흉하였으며 입술이 위로 들려 이가 다 드러나 보이고 어금니가 길게 돌아 마치 수정궁 아차나 우두나찰 같았다.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울 지경이었으며 숨소리도 이상하여 쟁기를 메 단 소 같고 형용이 헤아리기 어려워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속이 음흉하고 간특하기는 외모보다 더하였으나...”<sup>16)</sup>라고 하면서, 그녀의 추한 외모와 음흉한 성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임씨>는 (가)2와 같이 목지란이 목부인에게 문안인사 온 설공자

14)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 소설 속 탕녀연구-『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회, 2007, 209~211쪽. 여기에서는 등장인물과 서술자가 선택적으로 탕녀라는 낙인을 찍어 타자화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육취옥과 목지란 또한 이러한 선택적 규정을 통해 부정적 여성으로 타자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5)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 I』, 경인문화사, 2006, 26쪽. (<현씨양옹쌍린기> 권1, 25쪽)

16) 김지영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1』, 소명출판, 2010, 39쪽. (<임씨삼대록> 권1, 35쪽)

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훑쳐보면서 침을 흘리고, 몰래 숨어서 설공자들을 눈이 저리도록 바라보다가 몸이 둔하여 난간에서 거꾸러지는 등 그녀의 음욕을 강조하는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낸다. 이외에도 목지란이 설성염의 처소를 돌아다니다가 시녀에게 곤욕을 당하는 대목, 설성염에게 욕을 하다가 도리어 꾸짖음을 당하는 대목 등을 통해 그녀의 어리석음을 구체화한다. 또 설성염 부친의 꿈을 통해서 임창홍과 목지란의 짧은 인연이 삼생의 업원이라고도 서술한다.

즉 1단계에서 〈현씨〉는 육취옥의 사회경제적 배경, 용모, 성품 등을 단순 서술을 통해 형상화한다면, 〈임씨〉는 목지란의 추한 외모와 성정, 인물 관계 등을 자연의 섭리, 삼생의 업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인물의 개연성을 확보하고, 그녀의 음란한 행실과 어리석음, 추한 외모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2단계는 육취옥과 목지란이 중형제의 남편(또는 정혼자)인 남주인공을 보고 반하는 서사이다. 그런데 육취옥과 목지란은 남주인공에 대한 애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먼저 육취옥은 외사촌의 남편인 현경문을 빼앗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나-2와 같이 그녀는 시비 능선과 함께 계락을 꾸며서 경문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해한다. 취옥의 모해는 경문에 의해 손쉽게 풀리지만, 이로 인해 경문과 장인사이가 악화되면서 경문 부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등문고를 올리기 전에도 애욕 추구를 위해 적극적이었던 육취옥과는 달리 목지란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한다. 후원의 동산에 올랐다가 임창홍 등을 보고 경망스럽고 난잡하게 감탄하며 반하기는 하지만, 초왕의 장자임을 알고는 자신의 한미한 처지에 감히 넘보지 못함을 한탄하며 속절없이 걱정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2에서 목지형에 의해 조궁의 행각으로 옮겨진 후 옥선군주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씨 가문에 들어가 사모하던 마음을 풀려한다고 말하지만, 옥선군주가 주는 술과 고기를 칠없이 즐긴다. 목지란은 당장의 먹거리

가 창홍을 바라는 마음보다 우선인 것이다.

3단계는 육취옥과 목지란이 등문고를 올려서 남주인공의 첩실이 되고, 그 이후 전개되는 서사이다. (㉔)-1에서 육취옥이 등문고를 올리는 것은 2단계에서 보여준 애욕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사촌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외숙부의 분노를 산 상황에서, 애욕 추구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등문고를 올려 경문의 첩실이 되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지란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㉕)-1에서 목지란은 옥선군주의 협실에서 아무 탈 없이 한 계절을 지낸 후 창홍을 바라는 마음만 초조해져서 옥경군주에게 상소문을 부탁하여 등문고를 올린다. 그런데 목지란이 등문고를 올린 시점은 옥선군주가 임창홍의 첩실이 된 이후이다. 먹거리를 제공해주던 옥선군주가 부재한 시점에서야 등문고를 올리는 것이다. 또한 목지란은 상소문에서 13세에 이르도록 생계를 이어가게 할 방법(남성과의 혼인)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임씨 가문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즉 목지란이 등문고를 올리는 것은 임창홍의 애욕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sup>17)</sup> 이는 목지란이 임부에 들어간 후 시녀에게 자신이 조궁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조궁에 있으면서 남들이 집어주는 음식은 나의 큰 배를 반도 채우지 못했었다고 말하고, 배가 고프고 춘교의 더러운 모습만 보게 되어 괴로웠기 때문에 등문고를 올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등문고를 올린 이후의 공식적인 반응 역시 두 작품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현씨〉에서는 육취옥의 격고(擊鼓)를 현경문의 기특한 풍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처지를 가련하게 여겨 너그럽게 용서하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웃음’이 동반된다. 즉 육취옥

17) 최수현, 앞의 논문, 73쪽.

의 등문고 격고는 현경문에 대한 지나친 애정 표현이자 괴이하고 우스운 행동 정도로 인식되고<sup>18)</sup> 황제의 관인(寬仁)함이라는 차원에서 그녀의 애정 욕망이 용인되는 것이다. 반면 <임씨>에서 목지란의 격고와 상소는 ‘분노’를 동반한다. <임씨>에서는 목지란의 상소문을 통해 그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황실 인척의 과오나 악인들의 악행을 공론화하기 때문이다. 이때 임희린은 “목지란을 신에게 맡기시어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면 비록 신의 집은 어지러울망정 흉악한 일이 다른 곳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sup>19)</sup>라고 이야기한다. 황제는 임희린의 어진 말씀과 덕 있는 기운이 요사스러운 사람을 진압할 것을 알고 임희린의 말에 따르기로 한다. 이는 임씨 집안에서 목지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악행이 벌어질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그녀의 애정 욕망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육취옥과 목지란은 남주인공의 첩실이 된 이후에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육취옥은 끊임없이 경문의 애정을 갈망한다. 그녀는 주소저가 받는 총애를 빼앗고자 어리석고 외람된 언행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부모에게 문안하는 자리에서 경문을 보고 “기특할사, 혈육지신이 어찌 저같이 품수한고? 우리 구고가 유복하시다.”<sup>20)</sup>라고 말하는 등 경문만 보면 주변을 이랑곳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애정을 표출한다. 이러한 육취옥은 경문에게는 큰 두통이요, 주소저에게는 개유의 대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된다. 그리고 <대>2와 같이 육취옥은 주소저를 음해하고, 주소저의 모친인 후부인을 선동하여 경문에게 비례를 행하게 하는 등 시녀 영월과 함께 경문과 주소저를 사이를 방해한다. 애욕 추구를 위해 유교이데올로기

18) 정혜경, 앞의 논문, 40쪽.

19) 최수현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2』, 소명출판, 2010, 49쪽.(<임씨삼대록> 권10, 4쪽)

20) 이윤석·이다원 교주, 앞의 책, 77쪽.(<현씨양옹쌍린기> 권3, 17쪽)

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다. 영월의 관계는 경문에 의해 밝혀지고, 이 일로 경문은 육취옥을 더욱 싫어하고 괴롭게 여겨 평생 보지 않고자 한다. 그럼에도 육취옥은 경문이 자신 덕분에 소생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윤씨와 철씨가 다 잉태하자 자신만 홀로 처녀라고 불평하는 등 경문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한다. 이렇듯 경문에 대한 육취옥의 지나친 애정 표현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결국 육취옥은 (대)3에서 장시랑에 계교 덕분에 만취한 경문과 동침하여 여아를 얻게 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애욕을 성취한다.<sup>21)</sup>

등문고를 올리고 경문의 첩실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욕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언행을 일삼았던 육취옥과 달리, 목지란은 임창홍의 첩실이 된 이후 갑자기 성격이 변하게 된다. 등문고를 올린 이후 목지란은 임씨 집안으로 짐수레에 실려 오고, 가부장(家父長)도 알현하지 못한 채 부인들에게만 절을 올린다. 그 과정에서 목지란의 흉악한 외모와 어리석음은 다시 한번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목지란은 임부에 들어와 처음으로 여러 부인들을 알현한 이후 “지금 황제의 친손인 옥선군주도 이 집 규범을 무서워하여 신부례로 독교를 타고 왔는데 착한 임초왕이 나 같은 목주사의 손녀를 보기 좋게 짐수레에 담아 못 가마꾼에게 떠메어 거느리고 왔으니, 덩을 타나 독교를 타나 짐수레에 담겨 오나 임한림을 섬기기는 매한가지구나. 이런 장한 구경을 했으니 하심당에서 두 명의 어린 시녀를 데리고 다양한 음식들이나 양껏 먹으며 때때로 한림의 얼굴이나 얻어보면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과분하고 감격스러우니 여기서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sup>22)</sup>라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문의 예법을 존중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삼가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녀는 스스로를 유교이데올로기에 편입시킴으로써 추한 외모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웃음을 불러

21) 김지연, 앞의 논문, 232~233쪽.

22) 최수현 역주, 앞의 책, 59~60쪽. (〈임씨삼대록〉 권10, 28~29쪽)

일으키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목지란의 변화는 서술자의 태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목지란에 대하여 음흉하다, 흉악하다, 간특하다, 어리석다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서술자는 목지란이 임부에 들어온 이후 “예전의 흉하고 추한 몰골과 기괴한 모습이 변하였는데, 거들먹거리는 얼굴이 곱지는 않았지만, 보통사람의 얼굴 정도는 되었다.”<sup>23)</sup>, “비록 어리석고 패악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성질을 다 버렸다.”<sup>24)</sup>라는 등 변화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목지란의 변화는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 돌봐주는 태부인과 숙렬부인 등의 교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임창홍에 대한 애정 욕망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등문고를 올렸던 또 다른 목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을 마련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다. 임씨 집안에 들어감으로써 애욕만큼이나 강했던 식욕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ㄷ)-2에서 목지란은 오빠인 목지형과 옥선군주의 악행에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죽임까지 당한다. 설소저를 음해하기 위하여 옥선군주는 목지형과 상의한 후 스스로 요약을 먹고 설소저로 변하여 목지란을 살해하고, 이 일로 인해 설소저는 결국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된다. 목지란의 죽음에 대하여 임부의 사람들과 서술자는 애석함을 표현하며, 임창홍 역시 장례를 치른 후 목지란의 처소에서 곡과 절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서 목지란은 임부에서 사라진다.

이상에서 육취옥과 목지란은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면서도 개별적인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가문, 외모, 성격 등 무엇 하나도 취할 것 없는 여성으로 애정욕구 실현을 위하여 등문고를 올리고 남주인공의 첩실이 된다는 공통된 서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목지란은 음란한 여성으로 묘사되지만 등문고를 올리

23) 최수현 역주, 앞의 책, 105쪽.(<임씨삼대록> 권11, 46쪽)

24) 최수현 역주, 위의 책, 107쪽.(<임씨삼대록> 권11, 51쪽)

는 시점까지만 애욕을 추구한다. 반면 육취옥은 경문을 음해하고 첩실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욕을 추구하면서, 경문과 주소저 사이를 훼방놓기 위한 악행을 이어간다. 그런데 목지란은 죽임을 당하여 임부에서 사라지고, 육취옥은 어찌되었든 경문과 동침하여 애정을 성취하고, 딸을 낳아 현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더욱이 육취옥은 후편에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연작 전체로 볼 때 어리석고 말썽을 일으키며 때때로 과격적인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자꾸만 눈길이 가고 차마 미워할 수 없는, 규범이나 도덕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일탈의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개성적인 인물상을 형성하는 것이다.<sup>25)</sup>

선악의 윤리적 측면에서 목지란과 육취옥을 비교하면 당연히 육취옥을 악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교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배제의 대상을 꼽는다면 목지란이 아니라 애정 욕망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육취옥인 것이다. 하지만 각 작품에서 애욕추구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 인물의 애욕 추구가 어리석음으로 형상화되면서 작중 인물이나 독자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육취옥의 어리석음은 혼인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웃음을 불러일으키던 목지란의 어리석음은 혼인 이후 임부의 교화에 사라지고 이후 목지란 자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 3. 어리석은 여성의 도식성과 경계성

작품들에서 육취옥과 목지란은 어리석은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어리석은 기운(愚氣)’, ‘어리석고 외람됨(愚濫)’, ‘어리석고 외람되어 말과 행동이 이치에서 벗어남(愚濫狂悖)’ 등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녀들의

25) 박은정, 앞의 논문, 253쪽.

어리석음이 소환되는 것이다. 그녀들의 어리석음은 눈치가 없고, 아녀자의 염치가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주변인물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녀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녀들은 신분은 사대부이지만, 일찍 부모를 잃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배워야 할 교양을 배울 수도 없었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녀들은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유교이데올로기 내부자의 자격은 있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취옥과 목지란은 미추(美醜)의 대비로 볼 때 모두 추녀에 해당한다. 작품들에서 목지란은 귀신보다 더한 추모를 지닌 여성이라고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육취옥의 외모 또한 그 “용모가 등등하여, 용모 행사가 무일가취(無一可取)로되, 가뜩 기괴한 낮 위에”<sup>26)</sup> 등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여성의 미추는 색덕의 문제와 결부되어 형상화되거나 해석되어 왔다 즉 미인은 선한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그 색으로 인해 남성이 경계해야 할 인물로 그려지고 추한 여성은 악인형 인물이거나 아니면 부덕을 체화한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것이다.<sup>27)</sup> 하지만 육취옥과 목지란의 추모는 어리석음과 연결되어 색덕 담론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숙녀나 악녀가 아니고, 추하지만 부덕을 갖춘 숙녀도, 추하면서 음란하고 악랄한 악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교이데올로기의 경계 안쪽을 표상하는 숙녀와 바깥쪽을 표상하는 악녀는 모두 유교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여성상이다. 숙녀는 유교의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악녀는 징치의 대상이 되어 교

26) 육취옥의 외모에 대한 서술 내용은 차례대로 이운석·이다원 교주, 앞의 책, 26쪽(〈현씨양옹쌍린기〉 권1, 25쪽), 40쪽(〈현씨양옹쌍린기〉 권2, 8쪽), 이운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II』, 경인문화사, 2006, 268쪽(〈현씨양옹쌍린기〉 권23, 24쪽)에서 인용하였다.

27) 조혜란, 앞의 논문, 485쪽.

훈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녀도 악녀도 아닌 어리석은 여성들은 유교 이데올로기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이데올로기에서 일탈을 추구하지만 징치가 아닌 교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악녀와 마찬가지로 애욕을 표출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이 교화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녀들의 존재가 보잘 것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임씨>의 옥선군주나 옥경군주, <현씨>의 형아 등 악녀들이 황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애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주인공 가문의 위기를 초래할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과는 달리, 몰락한 사대부가 여성의 애욕추구는 잠시 분란을 초래할 뿐 남주인공 가문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가소로운 행위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미인은 현숙할 수 있지만 어리석을 수도 있고, 추녀 역시 마찬가지로 지이다. 현우(賢愚)와 미추(美醜)는 동궐에 있는 가치 대립이 아닌 것이다. 실제로 초기의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여주인공들은 물론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형상화되지만,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현성의 일부인 화씨는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성격으로 인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고, 소운명의 일부인 임씨는 추한 외모를 지녔으나 소씨 가문 며느리 중 누구보다도 현숙한 덕을 갖춘 것으로 그려진다. 또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유세필의 이부인 순씨는 추한 외모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만 오히려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다.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화씨와 추하지만 현숙한 임씨, 추하고 어리석은 순씨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현우(賢愚)와 미추(美醜)의 서로 다른 가치 대립을 바탕으로 어리석은 여성의 다양한 인물형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대의 작품들에서 어리석은 여성들은 대체로 추녀로 획일화된다. <임씨>의 목지란과 <현씨>의 육취옥과 같이 애욕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여성들은 모두 추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어리석

은 여성들로서 조성의 이부인인 왕씨, 조무의 딸 후염, 조기현의 2부인 범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리석음과 추한 외모를 동일화시키는 감성의 획일화, 도식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sup>28)</sup> ‘어리석음(愚)=추함(醜)’의 도식화는 해당 인물을 유형화하고, 유형적 익숙함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함, 감성의 획일화는 유교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양식이라는 관념은 지배의 심미적 등가물이며 사회적 위계질서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다.<sup>29)</sup> 현우(賢愚)와 미추(美醜)의 서로 다른 대립 기준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물의 형상화 속에서 〈유씨삼대록〉의 어리석은 추녀 순씨는 여성이 자신의 본능을 숨긴 채 속박되어 살아야만 하는 유교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일 수 있었다.<sup>30)</sup> 따라서 순씨는 추한 외모와 감정에 충실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유씨 집안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소외되는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시아버지의 비호와 남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교화되고 노년에는 태군 부인으로 추증되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음(愚)=추함(醜)’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면서 어리석은 추녀는 유교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화되고 독자들에게 유교이데올로기적 우월감을 주는 존재로 형상화된다.<sup>31)</sup> 즉 추한 용모에 대한 혐오를 어리석음 즉 여성의 애욕추

28) 칸트에 의하면 도식(Schema)은 개념의 감성화, 한 개념에다가 그 형상을 부여하는 상상력의 일반적인 절차의 표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박진, 『칸트의 ‘도식론’에 대한 고찰—칸트에 있어 ‘도식’ 개념의 역사적 원천과 의미』, 『대동철학』 24, 대동철학회, 2004, 163~187쪽 참조.

29) Th.W.아도르노·M.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197~199쪽.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양식이 단순한 심미적 법칙성이 아니고, 통일적 양식이란 그때그때 상이한 사회적 힘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지 보편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피지배자의 어두운 경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다.

30) 윤준섭, 『〈유씨삼대록〉의 ‘순씨’ 우행(愚行)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동방문화비교연구』 7, 동방비교연구회, 2017, 67~87쪽.

구와 결합시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추녀를 기피하고 타자화하도록 만드는 유교이데올로기의 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혐오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권을 지닌 집단은 혐오를 통해 배척의 대상과 자신들을 구분함으로써 자신들의 보다 우월한 지위를 명백히 하려고 하였다.<sup>32)</sup>

따라서 ‘어리석음(愚)=추함(醜)’의 도식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육취옥과 목지란은 남주인공의 첩이라는 신분으로 가문에 들어가지만 가문 내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화된다. 〈현씨〉에서 육취옥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는 이도 그녀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이도 드물다. 태생부터 결핍이 없는 내부자들은 욕망할 필요도 악할 필요도 없으니 육취옥에게 그 욕망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sup>33)</sup> 목지란 역시 임씨 가문에 들어오는 하지만 생전에는 임창홍의 첩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군식구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임씨 가문에서는 목지란에게 편안한 처소와 풍족한 음식을 제공해주면서도 살아생전에는 목지란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4)</sup> 이는 육취옥과 목지란이 혼인을 통해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는 했지만 내부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문의 경계인이

31) 이러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유씨삼대록〉, 〈현씨양옹쌍린기〉, 〈임씨삼대록〉의 창작 시기를 추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세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에서 〈유씨삼대록〉을 보았다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기록을 통해 〈유씨삼대록〉은 늦어도 18세기 초중반에는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씨양옹쌍린기〉와 〈임씨삼대록〉은 〈옥원재합기연〉에 제명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후반에는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또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유효공선행록〉 연작은 초기 형태의 작품으로, 〈성현공숙렬기〉 연작은 후대의 오락성이 강화된 작품으로 파악된다.

32)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00~201쪽.

33) 박은정, 앞의 논문, 245쪽.

34) 최수현, 앞의 논문, 102쪽.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교이데올로기의 경계인, 가문의 경계인으로서 육취옥과 목지란은 상반된 애욕추구의 결과를 보여준다. 육취옥은 애욕을 성취하는 반면, 목지란은 살해당하여 가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해당 작품들의 개성적 특징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 〈현씨〉는 웃음을 전면화하여 진지한 부부갈등을 농담하듯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함으로써 갈등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서술된 작품으로 파악된다.<sup>35)</sup> 작품은 현경문과 주소저, 현수문과 윤소저 부부의 자존감 대결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어 선악의 대립이 미약하고, 형이를 제외하고는 악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물 역시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도본 〈현씨〉의 필사자가 창선징악(彰善懲惡)하는 뜻이 적고 한가한 사람의 소일거리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작품이 선악의 극명한 대립보다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갈등을 전개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육취옥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철저하게 징치되는 것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애욕을 추구하면서도 존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임씨〉는 선악의 대립을 극명하게 하며, 악인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징치함으로써 무의식적 욕망과 쾌락을 펼쳐 보인 작품으로 파악된다.<sup>36)</sup> 이는 〈임씨〉가 선악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숙녀도 아니고 악녀도 아닌 어리석은 여성의 경계성이 구현될 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악의 경계에 존재하는 경계인으로서 목지란은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육취옥과 목지란의 애욕추구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일상성·현실성이 강한 〈현씨양옹쌍린기〉와 이념성·교화성이 강한 〈임씨삼대록〉의 작품적 특성

35) 정혜경, 앞의 논문, 40~41쪽.

36) 강우규, 「〈임씨삼대록〉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의 의미기능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9, 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188쪽.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육취옥과 목지란의 유형성을 염두한다면, 두 인물의 상반된 애욕추구 결과는 어리석은 여성이 지닌 경계성 그 자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경계는 안과 밖의 대립적 분할로,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속할 수 있고 모두에 속하지 못할 수 있다. 경계에 경계가 없는 것이다.<sup>37)</sup> 어리석은 여성은 이러한 경계 없는 경계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애욕을 추구한다. 애욕추구는 유교이데올로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녀들은 유교이데올로기 경계의 바깥쪽에 속한다. 하지만 그녀들의 애욕추구는 가문에 위협이 될 악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녀들은 징치가 아닌 교화의 대상이 되어 유교이데올로기 경계의 안쪽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녀들의 애욕추구는 어리석음으로 표상되면서 작중 인물과 독자들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웃음을 유발하는 희극적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들은 유교이데올로기 경계 안쪽의 숙녀도 아니고, 바깥쪽의 악녀도 아니다. 어리석은 여성들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속할 수 있으면서도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경계 없는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다.

경계 없는 경계성은 어리석은 여성 캐릭터의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여성들의 경계 없는 경계성은 그녀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녀들이 억제된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유교이데올로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어리석은 여성의 경계성은 수신서로 파악될 만큼 유교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향유층의 욕망을 적절히 구현하여 소설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국문장편소설의 전반적인 특징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즉 어리석은 여성의 경계

37) 박영옥,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데리다&들뢰즈』, 김영사, 2009, 86~89쪽. 여기에서는 데리다의 '파레르곤'의 개념을 경계 없는 경계로 설명하고 있다.

38) 강우규·이명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반란의 공간과 경계의 환상성」, 『우리문학

없는 경계성은 국문장편소설 속 교훈성과 오락성의 불명확한 경계와 이어져 있는 것이다. 육취옥과 목지란의 애욕추구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바로 캐릭터의 존재가치인 경계 없는 경계성의 유지와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유교이데올로기에 교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 육취옥은 경계 없는 경계성을 유지하며 존립할 수 있었지만, 유교이데올로기에 교화되어 욕망하는 것을 멈춘 목지란은 경계 없는 경계성이라는 캐릭터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작품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4. 결론

본 논문은 애욕추구를 위해 등문고를 올린 어리석은 여성인물로서 〈현씨양옹쌍린기〉의 육취옥과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의 인물 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작품들에서 육취옥과 목지란은 어리석은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그녀들은 기문, 외모, 성정 등 무엇 하나도 취할 것 없는 여성으로 애정욕구 실현을 위하여 등문고를 올리고 남주인공의 첩실이 된다는 공통된 서사를 보여준다. 그런데 목지란은 음란한 여성으로 묘사되지만 오직 등문고를 올리는 것에서만 적극적으로 애욕을 추구하고 이후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여 임부에서 사라진다. 반면 육취옥은 혼인 전 경문을 음해하고 첩실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욕을 추구하면서 경문과 주소저 사이를 뒤흔들기 위한 악행을 이어가지만 어찌되었든 경문과 동침하고 딸을 낳아 현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육취옥과 목지란의 인물형상화는 어리석은 여성이라는 인물 유형의 도식성과 경계성을 보여준다. 어리석은 여성은 숙녀도 약녀도 아닌 선악의 경계 즉 유교이데올로기의 경계 범위에 놓여 있는 인물유형이

연구』 52, 우리문화회, 2016, 208쪽.

다. 여기에 더하여 육취옥과 목지란은 “어리석음(愚)=추함(醜)”이라는 도식성을 보여주며, 어리석은 추녀가 유교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화되고 독자들에게는 유교이데올로기적 우월감을 주는 존재로 유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유교이데올로기의 경계인, 가문의 경계인으로서 육취옥과 목지란은 상반된 애욕추구의 결과를 보여준다. 육취옥은 애욕을 성취하는 반면, 목지란은 살해당하여 가문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해당 작품들의 개성적 특징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성·현실성이 강한 〈현씨양옹쌍린기〉와 이념성·교화성이 강한 〈임씨삼대록〉의 작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여성의 유형성을 염두한다면, 두 인물의 상반된 애욕추구 결과는 어리석은 여성이 지닌 경계성 그 자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리석은 여성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속할 수 있으면서도 모두에 속하지 않는 경계 없는 경계에 위치하는 캐릭터이다. 그녀들의 경계 없는 경계성은 국문장편소설의 교훈성과 오락성의 불명확한 경계와 연결되는 특징으로서 그녀들의 존재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어리석은 여성 캐릭터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욕망을 맘껏 추구하면서 유교이데올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이데올로기에 교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 육취옥은 경계 없는 경계성을 유지하여 존립할 수 있었지만, 유교이데올로기에 교화되어 욕망하는 것을 멈춘 목지란은 캐릭터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작품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태종실록 2권, 태종 원년 8월 1일 정사,  
[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8001\\_001](http://sillok.history.go.kr/id/kca_10108001_001)  
 <현씨양옹쌍린기>, 연세대 소장본 24권 24책.  
 <임씨삼대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40권 40책.  
 이윤석·이다원 교주, 『현씨양옹쌍린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김지영, 최수현 외 역주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 강우규, 「<임씨삼대록>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의 의미기능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39, 동아시아고대학회, 2015, 169~191쪽.  
 강우규·이명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반란의 공간과 경계의 환상성」, 『우리문학연구』 52, 우리문학회, 2016, 191~212쪽.  
 김서운,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한국학』 38-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98~218쪽.  
 김지연, 「『현씨양옹쌍린기』의 단일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의 관계」,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학회, 2005, 220~247쪽.  
 박은정,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육취옥’ 연구」, 『古典文學硏究』 51, 한국고전문학회, 2017, 223~260쪽.  
 박진, 「칸트의 ‘도식론’에 대한 고찰— 칸트에 있어 ‘도식’ 개념의 역사적 원천과 의미」, 『대동철학』 24, 대동철학회, 2004, 163~187쪽 참조.  
 심경호, 「낙산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한국학』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쪽.  
 윤준섭, 「<유씨삼대록>의 ‘순씨’ 우행(愚行)에 나타난 웃음의 의미」, 『동방문화비교연구』 7, 동방비교연구회, 2017, 67~87쪽.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251~279쪽.  
 정혜경, 「<현씨양옹쌍린기>의 서사적 힘; 웃음」,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33~63쪽.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유씨삼대록>의

-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83~518쪽.
- 최수현, 『<임씨삼대록> 여성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89쪽.
-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 소설 속 탕녀연구-『쌍성봉 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회, 2007, 197~234쪽.
- 한상권, 『조선시대 소원제도의 (訴冤制度) 발달과정』, 『한국학보』 19-4, 일지사, 1993, 65~105쪽.
- Martha C.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728쪽.
- Th.W.아도르노·M.호르크하이머,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2001, 1~398쪽.

ABSTRACT

A study of foolish women who beat the deungmungo(登聞鼓)  
—Focusing on Yuk Chi-ok in *Hyeonssiyang-ungssanglingi* and  
Mok ji-ran in *Imssisamdaerok*

Kang, Woo-kyu

This paper examines the shape and meaning of Yuk Chi-ok in *Hyeonssiyang-ungssanglingi* and Mok Ji-ran in *Imssisamdaerok* as embodying the foolish female figure.

They are women who have nothing to lose, and they become the male protagonist's concubines by sounding the drum by desire for love. However, after marriage, Mokjiran disappears when she is killed by a wicked man, and Chi-Ok Yuk finds his place despite committing evil deeds.

Yuk Chi-ok and Mok Ji-ran show the schematicity and liminality of the foolish woman as a character type. Folly is at the boundary between good and evil, according to Confucian ideology, and a foolish ugly is made other by Confucian ideology, establishing the scheme of "folly = ugliness".

However, the results of their pursuit of desire are different. This can be understood as being derived from the reality of *Hyeonssiyang-ungssanglingi* and the ideology of *Imssisamdaerok*, but the reason can also be found in the boundaries of foolish women. This is because the boundaries of foolish women can be understood as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which is linked to the duality of the Korean novel. Therefore, Yuk Chi-ok, who constantly desires and has boundaries, can survive, but Mok Ji-ran, who has lost the boundaries by conforming to the ideology, disappears.

**Key Words** Foolish woman, liminality, schematicity, *Hyeonssiyang-ungssanglingi*, *Imssisamdaerok*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